

# ‘도니’부터 ‘미녀’까지... “4시간이 4분 같았다”

김도영

변우혁

## V12 타이거즈 페스타

선수단 토크쇼·대결·공연 등 순간순간에 5000여 팬 열광 실착 유니폼 등 깜짝 선물도 예정 시간 훌쩍 넘겨 마무리

KIA타이거즈 선수들이 한 해 동안 열렬한 응원으로 올시즌 열두 번째 우승의 원동력을 제공한 팬들에게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KIA는 지난달 30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V12 타이거즈 페스타’를 개최했다. KIA가 2024시즌 통합 우승을 기념하고 팬들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5000여 명의 팬들이 참석했다.

사전 행사로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가 함께 전시된 포토존이 운영됐고, 한국시리즈에서 활약한 선수들의 팬사인회도 진행되며 분위기를 돋웠다. 입장하는 팬들에게는 통합 우승 특별 포토 카드와 한국시리즈 응원 머플러가 선물로 주어졌다.

사인회에 나선 선수들은 팬들의 짓궂은 요청에도 흔쾌히 응했다. 김도영은 한 팬이 최근 유행하고 있는 헤어지자고 챌린지를 요청하자 “헤어지자고? 나 내년에 40-40 할 건데?”로 응하며 길게 늘어선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본격적인 행사는 무대 아래에서 이범호 감독과 주장 나성범, 양현종이 우승 트로피와 함께 등장하며 시작했다. 이어 선수단 인사와 심재학 단장의 환영사, 무등산 보호기금 전달식, 한국시리즈하이라이트 및 축하 영상 상영이 진행됐다.

오프닝 공연으로 가수 이보람이 무대에 오르자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씨야의 히트곡 ‘사랑의 인사’와 ‘결혼할까요’ 등 여섯 곡을 열창한 이보람은 서한국 응원단장, 치어리더와 함께 응원가 ‘외쳐라 최강기아’와 ‘질풍가도’ 등을 부르며 한국시리즈 응원전을 재현했다.

팬들의 질문을 받아 진행한 선수단 토크쇼 ‘가퀴즈 온더 필드’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나성범은 ‘하루에 인스타그램을 몇 시간 하냐’는 질문에 “좋아요 늘렸을 때만 보시는 것 같다. 몇 분 정도”라



KIA타이거즈 김도영(왼쪽)이 지난달 30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V12 타이거즈 페스타’에서 뉴진스의 하니로 분장해 마츠다 세이코의 ‘푸른 산호초’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KIA타이거즈 변우혁(왼쪽)과 박정우가 ‘V12 타이거즈 페스타’에서 ‘내 귀에 캔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KIA타이거즈 박찬호(왼쪽)와 김선빈이 ‘V12 타이거즈 페스타’에서 팬들의 요청에 함께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고 해명하며 진땀을 뺐고, 광도규는 음악 추천 요청에 다섯 곡을 소개한 뒤 직접 랩을 선보이기도 했다. 또 박찬호는 ‘야구하면서 가장 짜릿할 때가 언제냐’는 질문에 “흠린 칠 때”라고 말했다고, ‘자신이 정말 족구 구멍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진짜 자존심 상한다. 차라리 야구 못한다고 놀렸으면 좋겠다. 공 칠 줄도 모르는 형들이 뭐라고 한다. 다리도 안 올라온다”며 웃음을 선사했다.

다. 선수단 대결 ‘흑백호랑이’에도 팬들의 호응이 이어졌다. 김도영과 윤도현의 릴스 댄스를 시작으로 김도현과 양현종의 병뚜껑 튀기기, 김선빈과 김태군의 손가락 펀치, 최형우와 나성범의 제기차기, 이범호 감독과 이우성의 배트로 공 튀기기 등이 진행돼 팬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승자를 모두 맞힌 팬 15명에게는 실착 유니폼과 신발 등 선수단 애장품을 선물했다.

숏폼 챌린지 상영 후 선수단 공연 ‘T COUNT DOWN’이 시작되자 가장 뜨거운 호응이 쏟아졌다. 2025년 신인 11명이 팀을 이룬 ‘MZ TIGERS’가 김중국의 ‘사랑스러워’에 맞춰 율동을 찾고 유승철과 김민준, 유지성이 조를 이룬 ‘늬눔늬’이 ASMRZ의 ‘잘자요 아가씨’와 울랄라세션의 ‘미인’을 선보였다. 이어 평소 뉴진스의 팬을 자칭했던 김도영이 하니의 의상을 따라 입고 ‘도니’로

변신하자 팬들의 환호가 이어졌다. 김도영은 하니가 불러 화제가 됐던 마츠다 세이코의 ‘푸른 산호초’를 완창한 뒤 “이렇게라도 사라웃(이름을 외쳐 팬심을 드러내는 것)하고 싶었다. 목이 아예 나갔다. 팔등이다”라며 팬심을 저격했다.

윤영철과 김도현, 황동하가 조를 이룬 ‘MAN ON A MISSION’이 트와이스의 ‘CHEER UP’과 싸이의 ‘New Face’에 맞춰 춤을 춘 뒤 다시 한번 장내가 술렁였다. 반짝이 의상에 단발 가발을 착용한 변우혁이 박정우와 함께 ‘미녀와 외야수’로 등장해 백지영의 ‘내 귀에 캔디’를 선보이자 장내가 들썩였다.

‘주르노마스’로 변신한 이준영과 ‘상한 로제파스타’가 된 전상현의 ‘APT.’ 뮤직비디오 패러디 영상 상영을 끝으로 선수단 참여 프로그램은 마무리됐다.

이어진 가수 아일릿과 다이나믹 듀오의 축하 공연으로 마무리된 이날 행사는 당초 세 시간을 넘어 네 시간 동안 진행됐다. 팬들은 “4시간이 4분 같았다”고 입을 모으며 행사를 만끽했다.

글·사진=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 ‘리얼글러브 어워드’도 호랑이들의 잔치

한국판 골드글러브

10개 구단 선수들이 뽑은 상 김도영·김선빈·박찬호 2관왕 양현종, 선발투수 부문 수상

올해 열두 번째 우승을 이룬 호랑이 군단이 한 시즌 간 필드를 누빈 선수들이 직접 선정해 주인공을 가리는 ‘한국판 골드글러브’에서도 세 명의 2관왕을 배출하는 등 존재감을 과시했다.

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KPBPA)는 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2024 컴투스프로야구 리얼글러브 어워드’를 개최했다. 리얼글러브 어워드는 감독과 코치, 관계자 투표 없이 오로지 KBO 리그 10개 구단 선수들의 투표만을 반영해 수상자를 가리는 시상식이다.

정규시즌 MVP를 수상한 내야수 김도영은 리얼글러브 어워드에서도 가장 빛났다. 김도영은 올 시즌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준 선수를 선정하는 올해의 선수상에 이어 팬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한 컴투스 Fans' choice까지 차지하며 2관왕에 올랐다.

김도영은 시상대에 올라 “야구 인기가 좋아진 해에 이 상을 받아 영광”이라며 “선배들께서 뽑아주셔서 더 뜻깊다. 올해 성적에 안주하지 않고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계속 상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 없이 기쁨만 느끼고 있다”며 “올해는 마냥 행복한 해다. 발전해야 하는 부분이 명확한 만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신중하게 임하겠다. 타석에서는 상황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찬스가 걸리면 살



김도영 올해의 선수상·팬스 초이스



양현종 선발투수



김선빈 2루수·베스트 키스톤 콤비



박찬호 유격수·베스트 키스톤 콤비

리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내야수 김선빈과 박찬호도 2관왕에 등극했다. 리얼글러브 어워드만의 특색을 갖춘 부문인 베스트 키스톤 콤비의 주인공이 된 김선빈과 박찬호는 각각 리얼글러브 2루수와 유격수 부문에 선정되며 두 개의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또 투수 양현종은 리얼글러브 선발투수 부문의 주인공

이 됐다. 투수 김현수와 유지성, 성영택은 각 구단에서 3명씩 총 30명을 선정하는 퓨처스 리그 선수상을 받았다. 지난해 KIA타이거즈 소속으로 이 상을 받은 투수 김재열(현 NC)과 외야수 박정우가 KBO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는 선수들이다.

한편 리얼글러브 볼펜투수 부문에는 김택연(두산), 포수 부문에는 박동원(LG), 1루수 부문에는 나승엽(롯데), 3루수 부문에는 황창균(KT), 외야수 부문에는 박해민과 홍창기(이상 LG), 정수빈(두산)이 선정됐고 베스트 배터리에는 임찬규-박동원(LG)이 등극했다.

한규빈 기자